

“듬직한 수비 조연서 빛나는 우승 주연 꿈꾼다”

광주FC '원클럽맨' 수비수 이민기

아시아챔스리그 데뷔 앞두고 부주장 맡아
“더 좋은 활약 기대감에 부담보다 설렘 커”
감독·선수 소통하며 푹푹 뭉쳐 시즌 준비



광주FC의 '원클럽맨' 이민기가 우승 주역을 꿈꾼다.

수비수 이민기는 지난 2016년 광주에 입단해 올 시즌 8년 차를 맞는 광주의 터줏대감이다. 2020년 32경기에 나와 주축 선수로 자리한 그는 2022년 26경기, 지난 시즌에는 28경기에 나오는 등 꾸준한 경기력으로 광주를 지켰다.

지킬 게 더 많아진 올 시즌 수비에서의 역할은 물론 그라운드 밖에서도 이민기의 활약이 중요해졌다.

3년 연속 안영규에게 주장을 맡긴 이정호 감독은 이민기에게 부주장 역할을 주문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선수들의 연결고리를 하는 만큼 이정호 감독은 고민 없이 이민기를 부주장으로 선택했다.

우승을 노리는 시즌, 처음으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데뷔까지 앞두고서 광주 주장단의 역할은 막중해졌다. 더 많은 시선 속에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이민기는 부담이 아닌 설렘을 말한다.

이민기는 “지난주에 시즌이 끝난 것 같은데 벌써 새 시즌을 준비하는 느낌이다. 작년 시즌을 워낙 잘해서 올 시즌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던 대로 하면 팬분들에게 더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는 마음이 크다”고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했다.

광주에서만 뛰어왔던 이민기에게 K리그 3위라는 높은 곳에 선 2023시즌은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시즌이었다.

“꿈꿨던 시즌이었다”며 지난해를 돌아본 이민기는 “광주 있는 동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일, 상상만했던



것들이 현실이 됐다. 팀 선수들 코칭스태프, 구단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보고 나아가려고 하면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또 “지난 시즌을 앞두고 동계 준비하면서부터 감독님이 올해 목표는 3위라고 말씀하셨다.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고 따라가면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다.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 ‘진짜 이게 되네’라는 생각을 했다”고 웃었다.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광주는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진짜 실력’을 보여줬다. 믿음과 노력

이 광주 질주의 바탕이 됐다.

이민기는 “시즌 중반에 경기도 많고 날도 더워지면서 오랜 기간 승리를 못 했다. 그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감독님, 코칭스태프, 선수들이 서로 믿고 해왔던 대로 준비했던 것을 하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다. 누구 하나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부 푹푹 뭉쳐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참에 속하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 중간 선수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했다. 축구적인 것도 많이 하면서 같이 가려고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부지런하게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승리를 지켜온 ‘원클럽맨’이지만 이민기는 그동안 묵묵한 조연에 가까웠다. 팀이 높은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시즌, 부주장이라는 역할까지 맡은 만큼 그는 올 시즌에는 빛나는 우승 주연이 되겠다는 각오다.

이민기는 “그동안은 주어진 역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왔는데 부주장 역할도 맡았고, 내 역할만이 아닌 팀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부주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포인트 부분에서도 많이 하면서 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목표는 항상 더 나은 것을 잡아야 하니까 올 시즌 우승을 생각하고 있다. 작년에 했듯이 우리 것 준비하면서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작년 시즌 팬들이 경기장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다. 더 많은 응원해주시면 더 높은 목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경기장 많이 찾아와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TP 상위 랭커 사우디서 만난다

조코비치·나달·신네르 등
10월 ‘식스 킹스 슬램’ 출전

남자프로테니스(ATP) 상위 랭커들이 올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이벤트 대회에 출전한다.

AP통신은 6일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와 라파엘 나달, 카를로스 알카라스(이상 스페인), 안니코 신네르(이탈리아),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 홀게르 루네(덴마크)가 10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리는 ‘식스 킹스 슬램’ (6 Kings Slam)에 출전한다”고 보도했다.

이 대회에 나오는 6명 가운데 루네를 제외한 5명은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우승한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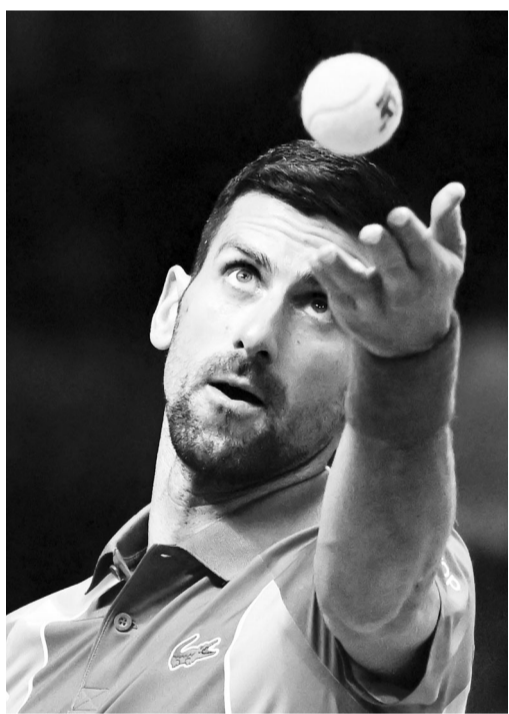
조코비치가 24회, 나달은 22회 메이저에서 우승했으며 알카라스가 2회, 메드베데프와 신네르는 한 번씩 메이저 왕좌에 등극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주요 스포츠 대회를 자국에 유치하며 이미지 변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대항하는 LIV 골프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후원하며 2022년 출범시켰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를 비롯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을 자국 리그에 불러 모았다.

또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1)을 2021년부터 열고 있으며 ATP 투어 21세 이하 랭커 초청 대회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도 지난해 처음 개최했다.

이밖에 2034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했고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시즌 최종전이 올해부터 사우



디아라비아로 개최지를 옮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테니스 전설’인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 크리스 에버트는 ‘인권 문제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WTA 투어 시즌 최종전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칼럼을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했고, 주미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이런 주장에 대해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반박하기도 했다.

올해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챔피언인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는 WTA 투어 시즌 최종전의 사우디아라비아 개최에 찬성 의사를 밝혔고, 나달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테니스협회 홍보 대사를 맡는 등 테니스계 안에서도 ‘반사우디’ 정서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 중이다. /연합뉴스

스타 탄생 기대...광주 쇼트트랙 12세 이하부 동계체전 동



왼쪽부터 천규림(송정중앙초2), 장윤(상무초4), 천유림(송정중앙초6), 김린(송정중앙초6), 김린아(상무초5)로 구성된 광주 동계체전 쇼트트랙 메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진 메달은 2015년에 열린 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홍성호가 획득한 동메달이다. 광주 선수단은 지난 1월 11-13일에 열린 빙상 스피드 경기에서 성덕초 장윤우가 획득한 금메달



왼쪽부터 천재혁(송정중앙초3), 이우빈(상무초5), 김건호(상무초5), 문승영(주월초6). <광주시체육회 제공>

2000m 릴레이서 동반 메달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진행된 쇼트트랙 2000m 릴레이 경기에서 광주 선수단 남자 12세 이하부와 여자 12세 이하부가 동반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12세 이하부 선수단은 천재혁(송정중앙초3), 이우빈(상무초5), 김건호(상무초5), 문승영(주월초6)으로 여자 12세 이하부 선수

단은 천규림(송정중앙초2), 장윤(상무초4), 천유림(송정중앙초6), 김린아(상무초5)로 구성됐다.

동계체육 불모지 광주에서 9년 만에 나온 전국 동계체전 쇼트트랙 메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진 메달은 2015년에 열린 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홍성호가 획득한 동메달이다. 광주 선수단은 지난 1월 11-13일에 열린 빙상 스피드 경기에서 성덕초 장윤우가 획득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에 이어 빙상 쇼트트랙에서 동메달 2개를 추가하며 이번 동계체전 사전경기에서만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강원 강릉컬링센터에선 광주 선수단이 경북과 컬링 경기를 펼친다. 20일에는 문승현(주월초 5), 김아윤(선창초 3), 박강희(조봉초 2)가 춘천 송암스포츠 파크 빙상장에서 피겨 경기에 출전한다. /김진아 기자 jinggi@

도체육회 윤준식,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

윤준식(전남도체육회)이 남자 레슬링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지난해 6월 창단된 전남도체육회 레슬링팀에서 나온 첫 국가대표다.

국가대표 선발 1차전에서 우승했던 자유형 65kg급 윤준식은 지난 1-6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레슬링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및 최종선발대회’에서 2차 선발전 2위에 이어 3차 최종 선발전에

서 승리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윤준식은 2차 선발전 1회전 경기에서 유선호(제주도청)에 3-1로 패했지만, 한성주(광주남구청)를 상대로 10-0 승리를 거두면서 1조 2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김창수(수원시청)를 만나 6-2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한 그는 1회전에서 대결했던 유



선호와 다시 맞붙어 3-4으로 2위를 기록했다.

윤준식은 최종선발전에서 2차 선발전 1위 유선호를 상대로 4-3, 설육전에 성공하면서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왕카
- 2관 아가일
- 3관 도그데이즈
- 4관 도그데이즈
- 5관 왕카
- 6관 시민덕희
- 9관 소풍, 데드맨
- 7관 씨네카툰 위시, 서울의 봄, 아가일극장판, 사이렌 스톤의 비밀
- 8관 씨네카툰 데드맨, 아가일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포시즌 뮤지컬 마리퀴리
일시 : 2024-03-02(토) ~ 2023-03-03(일)
14:00, 18: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정승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시 : 2024-01-17(수) ~ 2024-02-18(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